

2020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 동창



북텍사스지회 2019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창립50주년기념
2020.04.15

2020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2020 MEGA Dallas
11.05-11.08
Courtyard by Marriott Dallas-Carrollton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MEGA
Make Ewha Glorious Again
2020 
Dallas

11.5 - 11.8

Courtyard Dallas Carrollton and
Carrollton Conference Center



이화여대 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시애틀에서 많은 동문님들을 뵈었는데 이번에도 달라스 북미주 지회연합회 모임에서 반갑게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로 어렵게 새해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이화인의 기상과 의지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는 이화국제재단이 창립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활란 선생님께서 이화국제재단 창립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고, 창립을 위한 여정 중에 돌아 가시면서 정작 창립식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화가 일찍이 국제재단을 만들고, 동창회 모임을 활발하게 가지면서 한국의 다른 대학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디서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성실히 개척해 가는 강한 이화 정신이 있었기에 이화국제재단과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곳곳하게 자리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제재단 창립 50주년을 맞는 것 뿐 아니라, 김활란 선생님 50주기, 김옥길 선생님 30주기를 맞아 조출한 행사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2월 10일로 예정되었던 김활란 선생님 추모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지만 몇몇 동문분들께서 김활란 선생님께서 만드신 다락방교회 재건을 위해 모금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중 세계 곳곳에서 만났던 선후배님들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동문님들의 지극한 이화사랑을 경험 하면서 총장으로서의 자세를 좀 더 잘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미주지회 연합회는 연륜이 더해가면서 동문님들 간의 우의도 돈독해지고 넘쳐나는 이화사랑으로 학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멋진 지회연합회 모임을 해마다 이어가는 모습을 뵙는 것은 총장으로서 매우 기쁜 일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선후배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전세계 이화동창들이 교류하는 기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북미주 지회연합회 모임을 위해 애쓰실 달라스지회 동창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빛나는 젊음의 추억이 고스란히 간직된 이화캠퍼스를 더욱 빛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만나 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혜숙

북텍사스 지회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 동창 여러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올해는 북텍사스 지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이화동창들이 항상 그러했듯이 헌신과 봉사로 이화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며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진 회장님과 동창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이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국제재단과 더불어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은 모든 동창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동창회지를 발간하여 소식을 나누면서 모든 지회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도 크게 기여 하리라 생각합니다. 회보 발간을 위한 동창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였던 시애틀에서 함께했던 일정들이 생각납니다. 선후배 동창이 각지에서 찾아와 안부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고, 내년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헤어질 때에는 아쉬움과 사랑과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1 월에 북텍사스 지회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에서 동창 여러분과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총회의 주제로 설정한 “Make Ewha Glorious Again”은 동창들 마음 속에는 이화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이화의 위상이 한 번 더 드높아지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 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알고 모교를 더욱 발전시켰던 134 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번 총회를 통하여 결속력을 한 번 더 다진다면 이화를 향한 소망의 의지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곳 동창들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동창회는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창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면서, 세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5 월 동창의 날 행사에서도 반갑게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북텍사스 지회 Dallas 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남 상택

북미주 각처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진선미 이화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동창 여러분,

그동안 평안 하신지요!

시간은 어김 없이 새 계절의 문을 열어, 생명의 봄 기운으로 이곳 텍사스의 들판에는 텍사스의 꽃, 불루보넷이 아름다운 보라색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시는 동창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봄의 생기와 따스함이 함께 찾아 가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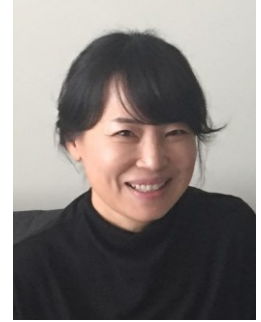
저희 북텍사스 지회는 2020 MEGA(Make Ewha Glorious Again) Dallas라는 주제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창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새 비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스크랜튼 선교사와 이름도 없이 김여인으로 알려진 1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이화의 역사는, 한국 여성들의 희망이자 등불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북미주 이화인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이화스토리를 기대해 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와 함께 해온 국제재단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재단 소식지에서 읽었던 'Keep the Spirit Going-Until No Woman Left Behind' 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134년의 이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배님들이 지켜오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할 이 비전을 계속해서 국제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가길 희망합니다.

동창이라는 이름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흩어져 있던 이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꿈 많았던 젊은 청춘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3박 4일 동안 나누게 될 이야기들, 올해도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떠나 이화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따뜻함과 즐거움이 있는 달라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북미주 이화 네트워킹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과 주님이 주신 큰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중남부의 중심 도시 달라스에서 광활한 대지, 텍사스가 주는 평온함과 이화인의 특별한 따스함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1 월 달라스에서 뵈 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신 동진

친애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창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매년 많은 시간을 들이고 힘써 준비해온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올해는 북텍사스 달라스에서 개최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었습디만, 예기치 않게 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COVID-19 팬더믹의 확산을 지켜보면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절감하고, 우리의 사회와 의료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질병(바이러스)에 국경이 없으며 지구촌이 하나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따뜻한 계절이 되면 어느정도 이 사태가 진정되리라 예견하고 있지만, COVID-19는 이름대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바이러스성 질병’ 이어서 누구도 확실한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 질병의 예방이 우리 각자의 예방수칙 준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지에 계시는 이화인의 ‘집단지성’과 기도로 다함께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최하는 북텍사스지회의 걱정도 십시일반 나누면, 2020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더욱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총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법을 생활 습관화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감히 희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북텍사스 총회를 앞두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오신 신동진 회장님과 북텍사스 지회의 임원님들 이사님들 여러 동문들께서 이와같은 불확실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걱정이 클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동창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2020년 북텍사스 총회를 준비하시는 손길에 더 큰 관심과 물심양면의 후원으로 도와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신 경 림



201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시애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9.10.24~10.26 / Hilton Bellevue

2019년 10월 24일 부터 27일 까지 벨뷰에 소재한 힐튼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열렸다. 본교에서는 김혜숙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최유미 대외협력처장 및 여러 총동창회 임원진이 참석했고 박현주 지회연합회 이사장과 이사분들,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각 지회장과 지회원들, 마크 멀리넥스 이화국제재단회장과 국제재단 이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 등이 북미주에서 참석했다. 북미주 각 지회에서 총 132 명, 본교 및 국제재단과 초대손님 총 16명 그리고 시애틀 지회에서 89 명이 총회기간동안 등록/참석 하였다.

금요일 저녁 총장님 초대 만찬에 총 148명 (시애틀지회 34명), 토요일 대만찬에 총214 명 (시애틀지회 81명) 참가하였다. 금요일 만찬에는 최선미(90, 한국무용)동문의 창작무용 축하공연으로 개막 1부 사회는 신인선(85, 불교) 동문의 진행으로 총장님의 학교소식, 대외협력처의 여름국제학교를 비롯한 사업소개와 더불어 새로 취임한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동창회소식 등 풍성하고 세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고, 2부에 탤런트쇼로 큰 재미를 선사하였다. 작년에 이어 최우수 작품상 (대상)은 남가주 지회에서 받았다. 시애틀 지회의 '배꽃 상조회' (성혜연 감독, 현

미경, 김성녀 출연) 콩트는 탤런트쇼의 백미라고 호평 받았다.

토요일 대만찬에는 김유진 (95, 성악), 김성아(99, 기악) 동문의 수준높은 축하연주로 시작하여 워싱턴대학의 모니카 모스칼 환경공학대학 부교수가 키노트 스피커로 'Go Green, Ewha!' 주제와 관련된 환경파괴의 실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감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이어서 이찬주 (00 동양화) 동문의 'Go Green, Ewha!' 동영상 상영되었다. 또한, 시애틀지회 이지숙(62화학)동창의 따님이자 UW의 헨리 엠 잭슨 국제학 스쿨의 학무처장인 캐서린 김 박사께서 축사를 전하였고던 헬만 석좌교수께서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김성아 지휘, 이혜연 피아노 반주와 첼로 조연자, 바이올린 이지영 동문과 연주한 합창단의 공연과 사위중창단의 깜짝공연으로 최고의 웃음과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하였다. 양일 모두 2부 사회는 재치만점의 한나리(92, 체육) 동문의 진행으로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글: 시애틀 지회 제공)



2019 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시애틀

남가주 지회 (S. California, CA)

회장 남궁봉일 (체육, 81)



저물어가는 2019 년의 행복한 마무리 2019 년 12 월 08 일(일) '이화여대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Los Coyotes Country Club 에서 17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1 부 행사에서는 안혜숙(간호 74) 전 부회장의 사회로 이춘자(약학 62) 장학위원이 동문 자녀 세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박신화(기독교 70) 이사장이 장계원(도서관, 76)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이보경(생미 80) 전회장의 이임사와 새로 취임한 남궁봉일(체육 81) 동창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2 부 이화인의 잔치 순서에는 음대 동문 3 명 엄인 용(성악 72), 정원혜(성악 83), 원순일(성악 85) 의 삼중

창, 주희정(피아노 08)의 피아노 와 클라리넷의 이중주가 있었으며 시애틀에서 개최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작년에 이어 최우수 작품상 (대상)을 받은 임원팀의 특별공연으로 흥을 돋우었다.

2020 년 02 월 26 일(수)에는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에서 서양 약초 및 약선 요리 강좌가 개최됐다. 이 강좌에 참여한 동문들은 서양 약초 (Basil, Rosemary, Thyme, Parsley, Sage) 등을 이용한 약선 요리를 배우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서양 약초의 효능과 이 약초들을 통해 어떻게 건강한 식단을 꾸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인의 식단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남가주지회 (Southern California)

대뉴욕 지회 (New York)

회장 김현우 (서양화, 82)



이화여대 대뉴욕지구 동창회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이라는 3 개주를 포함하는 지회로서 대뉴욕지구 동창회로 칭하

게 되었다. 2019 년 시애틀 에서의 북미주 지회연합회 모임 이후에 있었던 대뉴욕지구 동창회 소식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저녁 5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 55회 연례만찬이 치러졌다. 대뉴욕지구 이화동문과 가족 150여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룬 이번 연례만찬은 지난 한 해 대뉴욕 지구 이화동창회가 주최하고 함께한 활동을 돌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모교 소식을 공유하는 시간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화 후배들과 교포자녀 학부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뉴욕지구 이화 장학금 보고가 이루어진 뒤 장학생으로 선발된 강은총 동문(성악과)의 축하 노래가 있었다. 2부 순서에서는 뉴욕을 근거로 하여 활약 중인 양유나 동문의 패션 및 스타일링쇼가 있었다. 이화동문 선후배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 멋진 워킹도 선보이고 양유나 동문의 프로페셔널한 스타일링 팁을 얻을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연례만찬 행사장 복도 곳곳에는 대뉴욕지구 거주 미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녹미회가 준비한 미술품들이

전시되고 사일런트옥션 (Silent Auction)도 이루어져 연례만찬의 분위기에 품격과 아름다움을 더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된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연례만찬의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선후배가 다같이 정겹게 손에 손을 잡고 댄스타임을 가지면서 정겹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었다.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뉴저지 티넥에 소재한 Teaneck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열린 이번 신년하례식에는, 매년 200불의 후원금으로 대뉴욕지구 동창회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 이사님들을 모시고 열렸다. 25명이 참석하였다. 전통명절인 설날을 기억하며 떡만두국과 빈대떡, 각종 나물 등, 설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이화의 정을 나누었고 식사 후에는 역시 전통 놀이인 윷놀이로 웃고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대뉴욕지회 (New York)

덴버 지회 (Denver, CO)

회장 김윤미 (국문, 87)



2020년 덴버 신년모임 소식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 4시반에 신명관 식당에서 구정(설날)을 맞이하여 2020년 첫 신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새로 나온 동문 5명을 포함 총 24명과 몇분의 남편들도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처음 나오는 동문을 포함 대

거 젊은 후배들의 참석으로 앞으로 더욱 활기찬 모임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백홍자 전 회장님의 인도로 후배들이 선배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최고참 강경순 선배님의 새해 덕담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에 2020년 신임회장으로 그 동안 총무를 맡았던 김윤미



덴버지회 (Denver, CO)

(국어국문, 87)동문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었고 새 회장단으로 총무 주혜원(사회, 93), 회계 김선희(도서관, 94)가 임명되었습니다. 백홍자 전회장의 간단한 보고와 새 회장의 주도로 새로운 안건들의 회의를 마치고 이대 교가를 합창한 후 다음 봄 소풍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미시간 지회 (Michigan, MI) 회장 신인옥 (전자계산, 85)



2019년 5월 18일, 파밍턴에 위치한 흥화에서 이화 봄 동창모임이 열려, 35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신인옥 회장의 인사, 박은하 동문의 사회로 진행, 안민자 동문이 기도 인도를 해주셨다. 행사로는 이명덕 박사를 다시 초청 '노후자금과 상속'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Index Fund와 Mutual Fund의 특성에 대한 이해, 상속에 대한 정보 중 특히 Trustee는 필요한지, 401K의 중요성등의 내용으로 1시간여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저서 '미국에서 부자되기'를 참석한 전원이 선물로 받기도 하였다. 또한,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김혜옥, 신용자, 이해경 동문들께 꽃다발과 축하카드 증정이 있었다.

고, 2019년 10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총동문회에서 차승순외 김미애, 신인옥, 박정란, 황수영, 배자현 동문의 '내가 제일 잘나가'에 맞춘 Dance로 장기자랑에서 2등을 수상한 영상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정선동문의 진행으로 즐거운 게임시간도 가졌다.

미시간 지회는 2021년 미주지회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를 결정하고, 임원을 배정하였으며, 주제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Rise & Shine!)을 결정하였다. 주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실력과 명성이 이전과 같이 그리고 그보다 더 비상하기를 염원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여러가지 할 일들을 정성스레 준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11월 9일, 트로이의 마지아노에서 열린 송년 동창회에는 부부동반으로 총 49명이 참석 하였다. 신인옥 회장의 인사, 주현진 동문의 사회, 강영숙 동문이 기도 인도를 해주셨다. 회장의 '총동창회와 국제재단 활동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이화 국제재단을 통하여 미시간 동창회 장학 기금 수익금으로 4명의 이화여자대 재학생에게 각각 \$2,500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렸다. 행사로는 Troy High Jazz Band의 공연이 있었



미시간지회 (Detroit, MI)

벌티모어 지회 (Baltimore, MD)

회장 강성려 (심리, 67)



날짜 :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12시/장소 : Turf Valley Resort, Elliott City MD 21042 /참석인원 : 37명

1 부: 연례보고: 2019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참석한 보고(회장 강성려)/ 이화 국제재단 보고-재단 부이사장 홍경주 (약대, 62)

2 부: 교양강좌: 심장내과 의사 이광학 박사의 건강강좌 -김선희(생물, 69)의 부군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by Dr. Paul Brand and Phillip Yancey 책을 소개해 주셨 습니다.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강의였다. 60 조에서 100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우리몸의 세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제 역할을 수행 함으로서 인간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비하고, 부족해도, 너무 많아도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는것.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몸 깊숙히 숨겨져 있고, 표면은 부드러운 피부로 덮혀있다.

우리 삶에서도 원칙은 깊숙히 잘 간수하되, 표면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3 부: 오락: 한국무용(태평가): 윤계현 (사생, 59), 이현숙 (자수, 71) / 하모니카 연주: 명시복 -윤계현 (59)의 부군 / 함께 노래 부르기

이번 모임은 처음으로 부부동반 이었고, 화기애애 한 분위기로 거의 4 시간을 함께 했다. 스승 오광자 (가정, 65)와 애제자 이현숙 (자수, 71)의 뜻밖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이번에 맺은 인연을 더 아름답게 키워 가도록 모두 기대하는 것이 역력했다.

후기: 이화 벌티모어지회는 이번 총회에서 이화 국제재단에 장학기금이 \$13,171(9/30/2019) 이 있으며 \$30,000 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하였는데, \$58,043 (12/30/2019)를 이루었습니다.



벌티모어지회 (Baltimore, MD)

보스톤 지회 (Boston, MA)

회장 신은경 (법학, 88)



보스톤 지회는 2019년 12월 7일, 연말을 맞이 하여 Burlington, MA 에 위치한 Seven Springs Apartment Club House 에서 부부 동반으로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변화하는 본교 이화의 모

습을 동영상으로 살펴보고, 각종 바자 수익금과 선배님들의 기부금으로 정성껏 마련한 장학금을 지역 출신 대학, 대학원생 2 명에게 각 \$1,000 씩 지급 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2020 년 부터 2 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단, 회장 신은

경(법학, 88), 부회장 공정원(영문, 83), 총무 강정림(교육, 85)을 선출 하였다

몇 달간 동문들이 손수 제작한 담요(지역내 이민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를 들고 미니 퍼레이드를 하며 서로의 훈훈한 온기를 나누었다. 식사 시간에 이어 라인 댄스로 서서히 몸을 풀 동문들은 김지영 회장의 진행으로 여러 게임을 함께 하며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 동문들의 기부로 다양한 상품이 마련된 경품권 추첨 행사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을 나누는 푸짐한 자리가 되었다. 마무리로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따뜻한 봄 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덕담을 나누었다.



보스톤지회 (Boston, MA)



밴쿠버 지회 (Vancouver, Canada)
회장 최경숙 (교육, 73)



밴쿠버지회 (Vancouver, Canada)

밴쿠버 지회는 6월 부터 다음 해 5월까지로 하던 1년 회계년도를 총동창회 와 맞추어 1월 부터 12 월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40여명의 동창들이 1년에 4회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정모임, 여름 야유회, 추석모임, 연말모임으로 특별히 구정모임에는 그 해에 팔순이 되시는 선배님들의 생신을 축하 드리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화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www.ewhafoundation.com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www.ewhana.org
f @ewhanaorg
동창 여러분들의 회원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북가주 지회 (N. California, CA)

전 회장 곽정연(독문, 76)



북가주지회 동창회는 1964 년에 발족되어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동창회에 속한 합창반과 골프반이 있으며 주소록에는 350 명 정도 동창들이 있으나 매월 30-40 명 정도의 동창들의 모임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특별 활동도 하고 있다.

2019 년 10 월 12 일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북가주 지회 동창회 주최로 1st Benefit concert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동창회 합창반의 단원 30 명과 음대동창 9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했다. 음악회에서 조성된 후원금\$2,113 을 San Francisco Fire Department 에 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2019 년 11 월 2 일 모임에서는 Hillisborough 에 있는 곽정연 회장 댁에서 42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김영자 (약학, 57) 께서는 미주 국제재단 이사회에서 모교를 도우려고 2013 년에 시작한 <이화 해외동창 기금 100 만불 기금 운동>이 100 만불

이 달성 되어서 감사함으로 몇십년 동안 모아 놓으신 이화대학 로고가 들어간 여러 가지 소품들을 그 동안 북미주 지회에서 100 불 이상 모금에 참여 한 동창들을 위해 기증하여 번호뽑기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북미주 총동창회 에서는 모두 \$28,600 을 기여했다. 또한 점심, 떡, 과일을 모인 동창 모두에게 대접 하신 김영자 동창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2월 2일(일) Christmas Party가 San Mateo 에 소재한 Crown Plaza Hotel 에서 개최 되었다. 49 명의 동창들이 모였고 Violinist Richard Chon 과 Guitarist John Nicholas 의 보리밭, 고향의 봄, 사랑해 당신을, 재즈곡 등 감미로운 음악으로 동창들을 매료시켰다. 정순진 (의직, 80)의 부군 박인철씨의 Saxophone 연주와 김지연 (성악, 91)동창의 지휘 아래 북가주 이화여대 합창단의 찬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모든 동창에게 동창회에서 선물과 함께 본교에서 송부한 빨간 Ewha 새해 수첩을 주었다.



북가주지회 (Northern California, CA)

2020년 1월 4일(토) Milpitas 에 소재한 장수장 식당에서 29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1년 동안 동창에게 차편을 제공하여 수고한 10 명의 동창들께 Lucky Money \$2 씩과 떡국떡 을 선물로 주며 감사를 표했다. 모이는 날이 정초 설날이라 푸짐한 음식과 동창들 간의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월에 있을 Europe Cruise에 대해 참석자를 위해 다시

설명했다. 또한 3월이 새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이므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였다.

2020년 2월1 일(토) Oakland Hill에 소재해 San Francisco Bay View가 아름답게 보이는 정순진 부회장댁에서 38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박인철님께서 섹스폰 특별연주와 점심식사 후 2월 생일을 맞은 정순진 동창의 생일 축하식을 가졌다.

북텍사스 지회 (North Texas, TX)

회장 신동진 (섬유예술, 85)



MEGA 2020 개최 및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작은 음악회”가 2월 15일 개최 되었습니다. 본 음악회는 선배 이사님들의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모든 준비를 선배님들이 직접 수고하여 주셨으며, 또한 손녀 같은 후배 동문들의 공연이라 더욱 뜻 깊었습니다. 정성 가득한 식사와 아름다운 공연 그리고 기분 좋은 도네이션 자리에 참석하시고 관심과 격려를 표하여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연을 위해 수고하신 이규임(성악, 14), 김지은(한국음악, 14), 송명숙(관현악, 89) 동문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는 2019년 시애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달라스에서 개최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총장님과 함께 하는 두번의 만찬과 각 지회에서 준비한 탤런트쇼, 그리고 관광 등 많은 재미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위해 북텍사스 지회 임원진들은 열심히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단결과 화합을 북미주 전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 하며, 또한 북텍사스 회원들도 이번 행사를 통하여 더욱 친밀하고 소통과 화합이 있는 이화 달라스 네트워크를 만들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텍사스지회 (North Texas, TX)

총회 장소는 달라스-캐롤톤의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H-mart 에서 약 반마일 떨어져 있는 Courtyard로 결정 되어 이미 예약을 완료 하였고, 현재 참석 예상 인원은 총장님, 대학관계자, 총동창회장님, 동창회 임원, 국제재단, 각 지회 동문들로 약 300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창 회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St. Louis, MO)

회장 최혜영 (생활미술, 86)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12월 13일에는 정기 모임과 함께 부부동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23년 가운데 16년 동안 지회장을 맡아 수고해 왔던 정선주(성악, 68) 이사가 2020

년부터 북미주 지회연합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지회원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1월 8일에 40년간 세인트루이스 재향 군인병원 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선재숙(의학, 72)동문이, 1월 29일 진선미 모임에 참석 하여 명예로운 은퇴식 소식을 나누어 지회 원들의 감탄을 자아 내었으며, 2월 28일은 진선미회에서는 유익하고 또 폭소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지회의 이 두 경사를 축하하는 축하 파티를 계획하고 있으며, 모교와 지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화동창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 이화의 설립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지회 (St. Louis, MO)

시애틀 지회 (Seattle, WA)

회장 박명호 (정의, 78)



Evergreen State 워싱턴주 시애틀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시애틀의 겨울에는 Coffee 맛이 더욱 더 진하게 다가오지요. 먼저, 올 한해 총회준비로

바쁘실 Dallas 지회 임원진 및 동문님들께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 1월 11일에 34분의 동문님들이 참석하여 신년 첫 모임을 갖고, 새해 인사와 새 임원진 소개, 지난 한 해동안 수고하신 전 임원진들께 감사 함을



시애틀지회 (Seattle, WA)

전했지요. 해마다 하는 장학 사업으로 올해는 Univ. of Washington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Ms. Valerie Cortes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구요. 모임 후에는 신임 회장님 댁에서 윗놀이와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주 동문님들께, 2020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워싱턴 DC 지회 (Washington DC)

회장 서혜경 (정외, 90)



워싱턴 DC 지회는 2019년 12월 21일 크리스마스 파티 및 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 지회 활동을 돌아보고, 새 지회장으로 선출된 서혜경(정외, 90) 동문을 소개/인준하였습니다. 이상명(신문방송, 01) 문화부장의 진행으로 각종 게임과 준비된 순서들로 참석한 동문들과 가족들이 다같이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화 자녀들의 'Happy Birthday, Jesus' 합창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11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

석한 파티는 'Lady in Red' theme에 맞춰 멋지게 차려 입은 이화 동문들의 화려한 패션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0년 2월 8일 이사회 총회를 시작으로 워싱턴 DC 지회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40명의 이사 및 임원들이 모여 지난 한 해 이사회 활동 및 회계보고를 받았으며, 2020년 이사장으로 이도실(영문, 60) 동문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본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Ewha Summer Scholarship 지급 등 지역사회 봉사 및 후원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워싱턴DC지회 (Washington DC)

애틀랜타 지회 (Atlanta, GA)

회장 차희숙 (체육, 77)



애틀랜타 지회는 매월 둘째 주 월례회로 만나 동창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지회는 장학금 10만불을 달성하여 Helen Kim Society Leadership Member가 되었다. 이 기금으로 본교에 네명의 학부 학생들에게 각각 2500불씩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고 계속해서 매년 2000불의 장학금을 저축하고 있다. 올해도 한인 2세 학생을 돕는 장학재단인 미주 한미장학회 (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에 \$1,000의 기금을 전달하고 조지아 대학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 하였다. 그리고 애틀랜타 한인 문화회관과 봉사단체인 사랑의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를 후원 하였다. 3

월 10일에는 애틀랜타 미술 박물관 (High museum)을 함께 관람하는 문화행사를 가졌다. 6월 9일에는 인근 공원에서 가족 야유회로 모여 60여명의 동창이 즐거운 야외 모임을 가졌다.

9월 8일에는 김아자(의학, 63) 동창덕에서 정신과 의사인 송영혜(의학, 68) 동창을 모시고 우울증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각 부서 행사로 선교부는 매월 모여 기도회를 갖고 전 세계의 이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음악부의 이화 합창단은 매월 두번씩 모여 합창을 연습하고 한미 장학회 행사에 초대받아 합창 공연을 하였다. 체육부는 10월 16일에 이화 총장배 연례 골프대회를 개최 하여 많은 동창과 부군들

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 행사를 했으며 올해의 총장 배는 차희숙(체육, 77) 동창에게 수여 되었다. 동창소식으로는 정문자 동창(의학, 66)이 수필집을 출판하였다. 강혜경(신문방송, 65) 동창이 들루스에서 문인화 전시회를 가졌고 최인경(교심, 89) 동

창이 2회의 미술 전시회를 가졌다. 12월 8일에는 이화동창 송년연말 파티(배꽃들의 향연)를 열고 133명의 동창이 참여하여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20년 1월 8일에 총회를 열고 2020-2021에 수고할 새 회장 차희숙(체육, 77) 동창을 선출하였다.



애틀랜타지회 (Atlanta, GA)

클리블랜드 지회 (Cleveland, OH)

회장 노희용 (약학, 82)



매달 지회 모임을 가지며 양보다는 질적으로 깊이 를 더하고 있는 클리블랜드 지회는 다운 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 10 여분을 추석을 맞아 예년과 같이 한국식당 에서 식사를 제공하며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시간을 나누었다. 10 월에는 Baldwin Wallace 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모교에서 재학중인 채지연, 박규리양을 BW 교수 한정심(수학, 83)의 주선으로 만나 학생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11 월에 문성애 회장 덕에서 지회 연례 행사에 박규리, 채지연양을 비롯해 총 10 명의 회원들이 참가, 친목 도모는 물론 2020 년을 설계하고

이화인의 다양한 세대간 페미니즘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교환학생들이 지회에 보내는 편지도 읽으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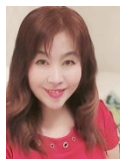
클리블랜드지회 (Cleveland, OH)

이외에도 클리블랜드 지회는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단체인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와 Womankind 지원하고 있으며, 모교에는 국제재단을 통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해오고 있는데 2019년에는 1 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모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 11 월 연례회의를 통하여, 2020 년의 임원들 구성을 마쳤다. 지회장에 노희용 (약학, 82), 선출이사에 김정진 (의학, 72), 문성애 (생미, 81), 후원이사에 이선희 (교심, 70), 임영미 (교육, 83), 서기 김인숙 (정외, 83), 회계 윤정분 (가정, 69), 임영미를 선출하였다.

토론토 지회 (Toronto, Canada)

회장 박현애 (사회생활, 81)



2020 년을 맞이하여 신임 임원단의 소개와 올해의 행사일정 협의를 위해 1 월 4 일 (토)에 박현애 회장 (사생, 81) 덕에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신임 임원단과 여러 역대 회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회의를 통해서 동문회의 한해가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첫번째로 최경자 목사님 (영문, 63)의 기도시 낭독 후에 풍

성한 식사와 친교시간이 있었고 박현애 회장의 진행으로 전임 회장님 들과 신년 임원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전임 회장님들께서 애써오신 동문회의 지난 발자취를 알게되는 좋은 기회 였고 신임임원들도 서로를 알아 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연이어 행사일정으로 일년에 3 번 열리는 햇볼회 예배모임과 3 월 정기총회, 6 월 야유회, 11 월 연말 파티에 대한 계획을



토론토지회 (Toronto, Canada)

세우고, 동문회 산하의 녹미회, 화음동호회, 선사인봉사회, 골프 동호회, 걷기동호회 등의 활동이 올해에도 활발히 지속되어지도록 논의하였다. 화기애애한 나눔의 시간은 문아연 동문 (사회, 72)의 기도와 함께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

포틀랜드 지회 (Portland, OR)

회장 김미진 (도예, 79)



12 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정숙 동문의 따님집 에서 (엄마를 대신하여 장소제공) 한접시씩 가져와서 모였다. 모두가 음식솜씨들이 훌륭하여 서로 서로 칭찬을 하고 많은 음식에 모두 허리단을 풀어야만 했다고 했으며...또한 이번 Seattle 총회를 다녀온 회장의 5 명 동창들의 보고와 함께 못가신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촬영한 회장은 자세한 설명과 총장님 소개도 빼놓지 않았으며 그동안 모아놓은 프로급 수준의 멋진 사진 감상의 시간을 가졌으며 처음 참여한 조은희(체육) 동창의 환영을 시작으로 자기 소개하다가 인생상담 혹은 간증시간으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집에서 만나니 너무 편안하구 행복한

동창회가 된다고 다음 부터는 가능하면 집에서 만나면 좀 더 효율적인 모임이 될것 같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저녁시간이 되어서 남편님들 저녁 해 주어야 한다면서 일어났다.



포틀랜드지회 (Portland, OR)

다가오는 새해 2020 엔 전문 MC 한나리 (체육, 92) 동창이 떡국을 해주겠다는 얘기에 마치 어린이이들 같이 행복해 하며 헤어졌다 그러나 너무 편안 하구 잘 먹구 잘 놀구 얘기 나누다 새 회장 선출 시간을 놓쳐서 김회장은 또 장기집권 연장에 들어갔다는 뒷얘기...포틀랜드 이화동창님들 건강하시구요 사랑합니다.

필라델피아 지회 (Philadelphia, PA)

회장 박윤옥 (간호, 75)



2019 년 5 월엔 듀폰이 부인을 위해 만든 유명한 룽우드 가든에서 만나 잘 가꾸어진 꽃들과 진귀한 식물들을 즐겼고 그주위에 사는 남광선(식품, 76) 동문집에서 맛난 점심을 대접 받았습니다.

9 월에는 두부식당에서 10 명의 동문들이 모여 최근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불임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 현역에서 뛰고 계신 최정교(의학, 71) 동문의 강의를 있었는데 임신에는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이었습니다. 10 월엔 처음으로 뉴저지 체리힐에서 동창회를 하였는데 19 명의 동문들이 모였으며 특히 7 명의 체리힐 지역의 새로운 동문들이 참석해서 앞으로 체리힐에서도 년 2-3 회 동창회를 할 예정입니다.

11 월엔 두부식당에서 12 명이 참석하여 내년 회장단을 뽑았는데 현 회장 박윤옥(간호, 75)

회계 이경희(무용, 87) 총무 김은아(교육, 91) 가 모두 1 년 더 유임키로 하였습니다. 12 월엔 예년과 같이 블루벨 라이라이 중식당에서 연말 동창회 모임을 하였는데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3 명이나 되는 많은 동문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연말 동창회 답게 풍성했으며 이날 특히 해양 선교하시는 김영미(영문, 87) 동문의 부군인 이병인 목사님의 선원들을 위한 해양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며 선교비로 \$500 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외이화동창기금으로 \$1,000 을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지회(Philadelphia, PA)

휴스턴 지회 (Houston, TX)

회장 구희경 (사회생활, 86)



휴스턴지회는 지난 12 월 Sugar Creek Country Club House 에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졌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나오신 선배님들과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한 후배님들이 함께 어울린 따뜻한 만남이었습니다. 휴스턴지회의 장학사업에도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휴스턴 동문분들께서 지회 장학활동, 봉사, 운영 등을 위해 너그럽게 도와주신 결과 2019 년 회기 말에 본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국제재단 휴스턴지회 기존 계좌에 더할 수 있었습니다. 1 월에는 휴스턴 지역 한인 어르신들께 식사대접을 하는 '구정

대잔치'로 새해 동문회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이 소중한 행사를 initiate 하시고 23 년간 맥을 이어오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열정과 진정성이 빛나는 행사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뜨끈 뜨끈한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들,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봉사해 주신 분들, 후원금, 격려와 응원 말씀 주신 분들,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신 동문님들 덕에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수고와 고단함이 보람으로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 월에는 Museum of Fine Arts Houston 의 Rienzi 라는 저택에서 유럽장식아트, 그림, 가구 등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휴스턴지회 (Houston, TX)

교명 '이화'

이화대학이라는 교명은 1887 년초 고종이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스크랜튼 부인이 경영하던 여학교에 하사한 <이화학당>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이화라는 명칭은 당시 학당 근처에 흐드러지게 피곤 했던 배꽃의 이름을 따다거나 이화정이라는 정자이름을 딴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화학당이라는 명칭은 각급 교육기관들이 독립된 학제를 가지고 운영됨에 따라 1925 년 대학과와 예과가 <이화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드디어 1928 년 <이화학당>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폐기되었다.

<이화>라는 교명은 단순히 한 교육기관의 이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여성교육의 전통과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만큼 일제시대에 와서 두번의 강제 개명을 당하여 1943 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 <청년 연성소 지도자양성과>로 변경되었으며 1945 년에는 <이화>라는 이름이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하여 <경성여자전문학교>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5 년 민족의 해방과 함께 이화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 <이화여자대학교>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WA WOMANS UNIVERSITY"는 이화가 해방 직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고유한 영문명칭이다. 이화의 영문이름은 단순히 이화여자대학교를 영문으로 옮긴데서 그치지 않고 이화의 심오한 교육이념이 담겨 있다. 이화는 일찍이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이름조차 없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화의 교육은 피교육자 한사람 한사람을 가장 고귀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과 자질을 개발하여 그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개별교육을 통해 완전한 인격체로 끌어 올리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이화의 교육이념을 구현하여 영문명에도 존엄하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한 여성(woman)이 다수(womans) 모여 대학교육을 받는 의미로 영문법에는 어긋나지만 womans 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글: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지회

년도	지회명	지회장	학과	졸업
1976	Washington DC	김정자	가정	1962
1977	New York	이해경	음악	1950
1978	Chicago	전신애	영문	1965
1979	New York	장한희	기독교	1953
1980	Detroit	김신형	가정	1949
1981	S California	김성자	교육	1961
1982	Chicago	최순자	의과	1966
1983	New York	조 연	약학	1961
1984	Philadelphia	장창희	가정	1962
1985	Washington DC	한순정	미술	1958
1986	N California	이명희	교육	1962
1987	New York	이부자	사회	1960
1988	Toronto	여정자	기독교	1967
1989	Chicago	최경혜	법학	1960
1990	S California	이희성	영문	1960
1991	N California	최충자	사회	1962
1992	Detroit	김정숙	의과	1962
1993	Houston	임예자	사학	1965
1994	New York	임병대	교심	1960
1995	Washington DC	오성미	영문	1964
1996	Boston	김경애	의학	1970
1997	Toronto	정인영	물리	1968
1998	Atlanta	김은숙	사학	1968
1999	Chicago	윤미혜	사사	1964
2000	S California	김대훈	화학	1960
2001	Detroit	차승순	기악	1970
2002	Orlando	하명숙	체육	1966
2003	N California	강영자	기독교	1964
2004	Houston	김성혜	식영	1972
2005	Cleveland	이선희	교심	1970
2006	Toronto	강선희	교육	1967
2007	New York	최성남	약학	1970
2008	Seattle	이정형	약학	1963
2009	Denver	이미옥	국문	1968
2010	S California	오명애	장미	1974
2011	Boston	조수현	수학	1976
2012	Vancouver	강유순	약학	1967
2013	Washington DC	오혜경	영문	1972
2014	N California	제갈숙경	기악	1979
2015	Atlanta	김정희	약학	1979
2016	Houston	김명옥	경영	1975
2017	New York	박영숙	경영	1986
2018	Toronto	박현주	물리	1989
2019	Seattle	신경림	장미	1980
2020	North Texas	신동진	섬예	1985

2020년 지회장*

번호	지회명	이름	학과	졸업
1	Alaska	김명순	간호	1962
2	Allentown	김여흠	영문	1954
3	Arizona	김은미	교공	1989
4	Atlanta	차희숙	체육	1977
5	Baltimore	강성려	교심	1967
6	Boston	신은경	법학	1988
7	Cincinnati	김영채	영문	1959
8	Cleveland	노희용	약학	1982
9	Denver	김윤미	국문	1987
10	Detroit	신인옥	전산	1985
11	Edmonton	조용옥	국문	1973
12	Hawaii	이상희	불문	1990
13	Houston	구희경	사생	1986
14	Kansas	강명숙	제약	1974
15	Lansing	조미영	동양화	1985
16	Minnesota	김선화	약학	1966
17	Montreal	김명원	수학	1992
18	N California	이영완	정외	1981
19	N.E. PA	김영화	가관	1976
20	Nashville	이명아	의학	1976
21	New York	김현우	서양화	1982
22	North Texas	신동진	섬예	1985
23	Orlando	신 혜	섬예	1992
24	Ottawa	박진희	생물	1988
25	Philadelphia	박윤옥	간호	1975
26	Portland	김미진	도예	1979
27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1966
28	S California	남궁봉일	체육	1981
29	Seattle	박명호	정외	1978
30	St Louis	최혜영	생미	1986
31	Toronto	박현애	사생	1981
32	Vancouver	최경숙	교육	1973
33	Washington DC	서혜경	정외	1990

*update 되지 않은 지회는 전 지회장임..

2020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고문

번호	지회명	이름	학과	졸업
1	New York	최성남	약학	1970
2	St. Louis	정선주	성악	1968
3	Seattle	이정열	조소	2011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은 이화대학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지역의 이화의 친구들과 이화동창들이 한국의 이화대학을 돕기 위해 결성, 미국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후원기관이다.

1886년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정동에서 이화대학을 시작할 당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화대학 설립을 후원하였다. 6대 총장인 앨리스 아펜젤러 학장은 당시 황무지나 다름없던 신촌 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며 이화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었다. 1930년대 신촌캠퍼스로 이전할 당시, 미국과 캐나다인으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아펜젤러 학장의 주도하에 본관(영문이름 Pfeiffer Hall) 등 주요건물의 설립을 도왔다. 이 주요 건물들의 설립으로 이화의 신촌 시대를 열게 해 준 파이퍼 부부



(Mr. and Mrs. Pfeiffer)는 그 후로도 유증을 이화국제재단에 남겨, 지금까지도 이화국제재단은 매년 본관건물의 수리유지비를 이화대학으로 보내주고 있다. (본관 건물에 위치한 총장실 입구에는 지금도 파이퍼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 위원회는 1947년 Ewha Womans University Cooperating Board in North America 로 발전되어 이화대학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 기관은 부산에 피난캠퍼스를 지어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하다가, 전쟁 이후에는 서울로 돌아온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건물 복구와 교육을 후원하였다.

특히 Cooperating Board 가 후원한 대강당 건물은 1956년 이화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완공되었는데, 당시 이화여대 재학생 4천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세종문화회관이 생기기 전까지 '동양 최고 규모의 강당'으로 기록되면서 한국의 공연문화를 이끌었다.



1960년대에는 당시 총장직에서 물러나 이화학당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활란 선생님이 미국을 방문하여, 유학 또는 초기 이민자로 미국에 자리잡은 한인과 이화졸업생 가족을 중심으로 <재미이화 10년 발전사업 후원회>를 결성하여, 미주지역에서 이화를 돕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후, Cooperating Board 와 재미 10년발전후원회는 함께 이화를 돕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합병을 준비하게 되었다.



1970년 4월 15일, 두 단체는 합병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합병을 추진하며 미국 전역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다가 안타깝게도 병을 얻은 김활란 선생님은 국제재단 출범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시고 이 출범식에는 대신 김옥길 선생님이 참석하였다. 이후 매년 열리는 국제재단이사회에

는 김옥길 선생님을 시작으로 이화대학의 총장님들이 함께 하면서 이화대학 소식을 전하며 이화후원의 장을 열어왔다.



매년 모교 총장님이 뉴욕 국제재단사무소를 방문할 때 마다 총장님과 만나 모교소식을 나누고자 했던 소수의 인근지역 이화동창들이 뉴욕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제재단의 이사였던 임길재(영문,33) 박사님의 건의로 타지역의 동창들이 국제재단 연례회의를 그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총장님도 쉽게 만나고 해당

지역의 동창회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1976 년 이후 각 지역의 동창회가 국제재단 이사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지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친목하며 학교를 후원하는 장으로 발전되었고, 지금의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매년 각 지회를 순회하며 개최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향후 계속해서 국제재단과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이화여자대학교를 후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국제재단은 1970 년 이래, 크고 작은 이화의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각종 장학금, 연구기금, 연구시설 및 연구기구, 인적교류와 도서 및 건물건축 지원 등을 통해 이화를 도와왔다. 국제재단은 2020 년 2 월 현재, 150 여개의 장학기금 및 각종 기금 그리고 31 개의 동창지회 기금등을 통해 이화여자대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1970 년 이래 지난 50 년간 총 \$17,089,000 의 기금 모금을 하였고, 국제재단이 이화여자대학교로 보내준 지원금은 \$14,505,000 에 이른다. (자료제공: 국제재단)



2019 년 시애틀 국제재단이사회에 참석한 김혜숙총장

이화국제재단의 북미주지역 장학금 안내

1. **아펜젤러장학금:** 이화대학을 졸업한 동창 중, 미국 현지에서 석사/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기대학 장학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학기대학(Ewha International Summer College) 과정에 등록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 장학기금은 여러가지가 있고 조건은 다양하여 한인 2-3 세, 미국인/캐나다인, 개발도상국가 학생 중 남녀 공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 장학금에 대한 질문은 이화국제재단 사무실(Tel. 212.864.5759/ Email: ewhafdn@gmail.com)로 문의바랍니다. 모든 장학금 신청서는 이화국제재단 홈페이지 (www.ewhafoundation.com)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기대학장학금들은 이화여대 학기대학 홈페이지에서도 또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일정

11 월 5 일 (목)	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 북미주 지회연합회 등록
	6:00 PM - 8: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미팅
	8:0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
11 월 6 일 (금)	7:00 AM - 8:30 AM	아침식사
	8:30 AM - 4:30 PM	시내관광 (달라스/포트워스)
	8:30 AM - 4:30 PM	워크샵 (세미나, 이화공방)
	4:30 PM - 5:30 PM	이화합창 연습
	5:30 PM - 6:30 PM	각 지회 탤런트쇼 리허설
	6:30 PM - 10:30 PM	총장님과의 만찬*, 각 지회 탤런트쇼
11 월 7 일 (토)	7:00 AM - 8:30 AM	아침식사
	8:30 AM - 10:30 AM	총회
	10:30 AM - 4:30 PM	소그룹 활동
	4:30 PM - 5:30 PM	이화합창 연습
	5:30 PM - 6:30 PM	리셉션
	6:30 PM - 10:3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11 월 8 일 (일)	7:00 AM - 8:30 AM	아침식사
	8:30 AM - 9:30 AM	예배
	9:30 AM - 11:00 AM	총장님과의 대화, 작별인사

* 총장님과의 만찬(금요일) 드레스코드: 정장, 칵테일드레스

** 대만찬(토요일) 드레스코드 : 포멀드레스, 이브닝드레스

관광안내

시내관광	11 월 6 일 (금) 8:30 AM - 4:30 PM	참가비: \$95 (가이드, 차량, 중식, 입장료, TIP 포함) 존 F 케네디 기념관, Reunion Tower, Pioneer Plaza, City Hall, Ball Park in Arlington, Fort Worth Stock Yard
텍사스근교 관광*	11 월 8 일-10 일 (2 박 3 일)	참가비: \$399 (2 인 1 실/차량, 모든 식사 포함) 신청인원 20 명 이상일 경우 가능 버스투어: 어스틴, 샌안토니오, 프리미엄 아웃렛몰
멕시코 캔쿤여행**	11 월 8 일-11 일 (3 박 4 일)	참가비: \$1,000~\$1,200 (2 인 1 실) 항공료, All inclusive 호텔, 숙박포함

* 가격과 일정이 변동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 명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 호텔 등급 및 예약 시점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비는 1 인기준 입니다.

2020 MEGA DALLAS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소속 지회				
거주지 주소	Street			State
	City			Zip
연락처	Cell			Home
	Email			
졸업학과			졸업년도	
동행자수	본인제외	명	동행자이름	

행사날짜	행사내용	참가비	인원수	합계
11 월 5 일(목)	총회참가 등록비*	\$25		
11 월 6 일(금)	아침식사**	\$10		
	시내관광	\$95		
	총장님과의 만찬	\$100		
11 월 7 일(토)	아침식사**	\$10		
	총회대만찬	\$120		
11 월 8 일(일)	아침식사**	\$10		
			총액	

* 참가등록을 8월 31일 전까지 신청시 참가등록비가 면제됨.
 ** 아침식사비는 \$25이며 본인부담은 \$10임. (북텍사스지회 지원)

메뉴선택(금)	소고기		닭고기		연어	
메뉴선택(토)	소고기		닭고기		연어	

만찬의 주메뉴는 2가지를 선택(2 Choices)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메뉴에 인원수를 표기하여 주세요.

관광신청	시내관광		근교관광		캐년여행	
-------------	------	--	------	--	------	--

원하시는 관광/여행에 신청자 인원수를 표기하여 주세요.

참가신청마감 (9월 30일)	Check/Money Order: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반드시 이름, 졸업년도, 학과, 지회를 수표에 기재) Payable to : Ewha Womans Univ Alumnae of North Texas (EWUANT) 보내실곳: 618 Northwood Trail, Southlake, TX 76092 Zelle (인터넷송금): mega2020@ewhaindallas.org (메모란에 이름, 지회명 기재) Zelle 이용시 신청서 작성후 신청서를 위의 주소로 Email 혹은 우편으로 송부
호텔예약마감 (9월 30일)	Courtyard by Marriott Dallas Carrollton and Carrollton Conference Center 1201 Railford Rd, Carrollton TX 75007 (Phone: 972-446-0001) 예약링크: TBD
택시 서비스	Uber, Lyft: 약 \$30 정도 예상 / 한인택시: 972-900-8282
공항	DFW Int'l Airport: 호텔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함. Love Field: 로컬공항으로 다운타운에 위치, 호텔로부터 멀고 교통 혼잡이 심함.

문의: 참가 신청 관련 모든 문의는 정소영(469-929-5161) 동문에게 연락하세요.

동창회 기금/장학금 소식

2019년 동창회 기금관련 보고 요약

북미주지회 기금 총액	\$2,160,946 (2019.09.30 현재 누적 총액)	
북미주지회 모금 총액	\$37,000 (2019년 회계년도* 동안 9개 지회에서 기금으로 모금된 총액)	
북미주 각지회 기금	목표 달성 지회 (15 지회)	현재 각 지회에서 설정한 기금 목표를 달성한 13개 지회 (14개 기금)는 지회 이름의 기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 알래스카,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미시간(디트로이트), 휴스턴, 뉴욕, 동북오하이오(클리블랜드), 남가주 I & II(서머스쿨),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토론토, 워싱턴 DC 미네소타지회, 버티모어지회는 목표기금이 달성을 하여 차후 장학금 지급예정
	모금 중인 지회 (14 지회)	아리조나, 버팔로, 쉰시네티, 덴버, 캔사스, 라스베가스, 리하이밸리, 동북펜실베이니아, 오레곤, 필라델피아, 로드아일랜드, 샌디에고, 세인트루이스, 밴쿠버
	신규기금 설립지회	북텍사스
해외이화동창 기금	목표(\$1M)달성	\$1,096,899.05 (2019.9.30 현재 누적총액)
의과대학 기금	목표달성(\$200K)	2010년에 달성하여 매년 모교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약학대학 기금	모금중(목표:\$100K)	\$83,295.19 (2019.9.30 현재 누적총액)
간호대학 기금	모금중(목표:\$100K)	\$49,088.26 (2019.9.30 현재 누적총액)

*2019 회계년도: 2018.10.01-2019.09.30 (자료제공: 국제재단)

2020년 국제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후원금(모교지원)

지회명	장학금*	지정장학금/후원금**
워싱턴 DC	\$10,000	\$1,400
대뉴욕 지회	\$15,000	
북가주(샌프란시스코)	\$7,500	
남가주 지회	\$10,000	
남가주(하기장학금)	\$10,500	
남가주(배꽃회 장학금)		\$1,300
남가주(EGPP 장학금)		\$10,000
보스턴	\$7,500	
시애틀	\$2,500	\$5,000
미시간(디트로이트)	\$7,500	
휴스턴 지회	\$7,500	
동북오하이오(클리블랜드)	\$7,500	\$2,000
애틀랜타	\$5,000	
토론토	\$5,000	\$20,000
합계	\$95,500	\$39,700

지회별 로컬 이화동창회 장학금***

지회명	인원수	총액
시애틀	1명	\$1,000
북텍사스	8명	\$4,000
대뉴욕	3명	\$10,000
휴스턴	2명	\$2,000
남가주	3명	\$3,000
워싱턴 DC	6명	\$11,400
보스턴	2명	\$2,000
애틀랜타	5명	\$3,000
북가주	15명	\$7,500
장학금 총액		\$43,900

장학금/후원금 총액	\$179,100
-------------------	------------------

* 2020년 회계년도(2019.10.01~2020.09.31)중 국제재단이 이화여자대학에 지급/예정인 지회별 장학금.

**지정장학금/모교발전 후원금은 2019.1~2019.12에 지급된 금액임.

***북미주 각 지회에서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2019.4.1~2020.3.31)

뉴스타 "Jeny" 콕정연 부동산

주택 / 콘도 / 아파트 / 상가건물 / 사업체 / E-2
www.norcalnewstarrealty.com



"Jeny" 콕정연
CCIM Candidate
DRE#: 01383036
e-mail: jenykwak@gmail.com

부동산 투자만큼은 **완벽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차원이 다른 **Professional**을 선택하십시오.

경력
(현) 뉴스타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상업투자 및 주택전문
38년간 베이지역 거주
샌디에고 부동산협회 멤버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멤버
미국 부동산협회 멤버
(전) Coldwell Banker
인더펜던스 프레이밍, 매니저

학력
EMBA Global (영국에대)
이화여자대학교 (특목고)
서울사대부고

베이 전지역에 계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 San Francisco, Santa Clara, Dublin, Millbrae 내에서
미리 전화 약속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 Property



Cell Phone
650-544-6099

▶ 745 Buchana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 7033 Village Parkway, #210, Dublin, CA 94568
▶ Mailing Addr.: P.O. Box 997 Millbrae, CA 94030



K · JENNY

BOUTIQUE

WWW.KJENNY.COM

469-684-3993

2625 Old Denton Rd #516 Carrollton, TX 75007



결과를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이베트 리가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일정관리로
귀하의 성공이민을 도와드립니다.



이베트 리 변호사 (Yvette Lee)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성공이민
"고객을 가족 같이
친절한 상담-
빠른 문제 해결"

408-938-9993
yvettelee21@gmail.com
www.yvetteleelaw.com
1290 Kifer Rd., #309
Sunnyvale, CA 94086

취급분야

취업이민/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H1B취업비자
E-2 소액투자비자
E1, E2, L1 주재원비자
NIW, Extraordinary Alien
각종신분 변경 및 신분연장



2020
MEGA
Dallas
11.5 - 11.8
Courtyard Dallas-Carrollton

정영희 부동산

부동산의 대명사

달라스에서 40년 거주
부동산 경력 30년

텍사스 부동산 전문연령중 소지
88 올림픽 동역자원봉사
미국주택용자회사 근무
미국신문사 Stars and Stripes 근무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새집을 사거나 짓고 싶을 때
좋은학교를 원할 때
처음 집을 사거나 팔 때
타주에서 왔을 때
한국에서 갓와서 생소할 때

은행으로 넘어간 집을 원할 때
큰집으로 옮길 때
집을 줄여서 갈 때
집값 페이먼트가 밀릴 때

노후에 집을 장만 할 때
내집을 팔고 싶을 때
부동산에 투자할 때
아파트를 산다면



주택전문

www.jungyoungheerealtor.com

972-898-8445

William Davis
Licensed Agent
Multi-Million Dallas Producer



2020.4.15
국제재단 창립5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2625 Old Denton Rd #516, Carrollton, TX 75007
 mega2020@ewhaindallas.org / 469-684-3883



이화국제재단

Dr. Helen Kim formed 1967
 Ewha Womans University Decade Development Committee



1947 Ewha Womans University
 Cooperating Board in North America



이화국제재단 창립50주년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